

●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시편 1장 1~3절)

복 있는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멀리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하되, 욕심이 나는 자리라도 자신을 필요치 않은 일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삶이 진정 인간다운 삶이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복을 물질에 두는 것이다. 즉 잘 사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못사는 사람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복을 물질에서 찾는 소인배적 생각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복은 인간답게 사는 것,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누군가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있음으로 이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복있는 사람이다.